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54)

朕何憂哉

짐 하 우 재

짐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걱정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꿈꾸는 세상이다. 그러나 걱정이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도 내가 적당한 정도 노력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걱정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쉽게 걱정을 해소하기 어렵다. 그런데 남송(南宋)은 금(金)으로부터 압박받아서 평화가 금의 손에 달린 것 같은 상황에서 고종(高宗)이 대신(大臣)들에게 '짐(朕)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라고 한 일이 있다. 남의 손에 달린 걱정거리를 두고 고종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한 시기는 고종 소흥(紹興) 12년(1142년)이다. 1126년 이후로 남송이 금(金)의 남하하고 송의 휘종과 흥종이 금에 포로가 되어 갔고, 휘종은 금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이미 7년 전에 죽었다. 휘종의 아들 고종은 아버지의 영구(靈柩)를 보내달라는 요구조건만 들어 준다면 자기 자신이 굶힐 수 있을 때까지 굶면서라도 화의(和議)하려고 하였다. 드디어 고종의 바람대로 금은 화의에 응하여 휘종의 영구를 돌려보냈지만, 송금(宋金) 간의 영역은 금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배어 주었다.

또 금에서는 남송 고종이 휘종과 흥종이 포로가 된 뒤에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므로 그의 황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고종에게 휘종이 주었던 작위인 강왕(康王)으로 호칭하였다.

강왕 조구(趙構)는 금(金)에 맹서문(盟誓文)을 보내어 금(金)의 신하가 되겠다고 자칭(自請)하였다. 그러자 금(金)의 황제는 송에 책봉사(冊封使)를 보내어 강왕 조구를 송의 황제로 책봉하였다. 이 모두는 송에게 치욕적인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 고종이 '짐(朕)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금에 대하여 모든 굴욕을 감내하고라도 이제는 전쟁하지 않게 되었고 자기도 국제적으로 황제의 칭호를 받게 되었으니 걱정이 다 사라졌다는 말인가? 그러하다면 고종은 배알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걱정 없다고 한 말의 앞뒤를 보면 꼭 그러하지는 않다. 이 말의 배경에는 금(金)의 내부 사정을 듣고 나서였다.

고종은 대금(大金)황제인 희종(熙宗)과 그 황후에 관하여 정보를 입수하였던 터였다. 그 내용은 금의 중궁(中宮)이 자못 방자(放恣)하며 황제의 권력을 중궁이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정보를 입수하고 금에 사신을 보낼 때 금의 황후가 좋아할 것을 아낌없이 물목(物目)에 넣으라고 하였다. 그 가운데는 진주(眞珠)같은 보석류는 물론이고 삼삼(駁鞍)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삼삼이란 삼혜(鞍鞋)를 말하는데, 요즈음 말로는 슬리퍼로 율이 촘촘하게 꿰매져 있고 코가 깊으며 코에 삼각형의 가죽을 댄 형질이다. 당시로서는 귀중한 사치품이었다.

그러면서 고종은 말하였다. '나는 진주나 삼삼이 같은 것은 몰아보지 않지만, 금나라에서 특히 실권을 행사하는 황후가 이런 사치품을 좋아하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치품을 많이 준비하여 보내어서 그들이 더욱더 사치품에 관심을 두게 하라.'고 하였다.

고종은 덧붙여서 지시하였다. 금인(金人)들은 또 흰 얼굴을 한 호손(胡孫, 원숭이)과 양부(鸚鵡)·공작(孔雀)·사자(獅子)·묘아(貓兒)를 필요로 하니 황제도 역시 이를 찾아 수집하여 주게 하였다. 많은 고급 사치품을 보내어서 금(金)의 황후를 비롯하여 고관들이 더욱더 사치하게 만들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금인(金人)들의 욕심을 넓혀서 그들의 사치하는 마음을 자극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치한 생각으로 한번 열리고 금의 내부가 약화한다면 송의 어려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면서 고종은 "적들은 1만 리(里)나 되는 먼 길을 와서 필요한 것이 이와 같으니 짐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고종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듣건대 금(金)의 황후(皇后)가 정치를 멋대로 하여 삼성(三省)에서는 오직 황후의 지의(旨意)를 이을 뿐이라고 하니 그 주군이 말하는 것은 돌아보면 아직 반드시 들을 것은 없소. 또 황후의 성품이 치미(侈靡, 분수에 넘치는 사치)하다고 하며, 그가 진주(眞珠)로 장식한 의복을 입어서 추가로 수부(繡婦, 수를 놓는 여자)를 모은 것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며 황후는 하루에 수의(繡衣)를 한 벌씩 바꾼다고 하며 가지로는 수백 민(緡)이니, 그들의 풍속이 이와 같다면 어찌 능히 오래 가겠는가!"

이와 같은 사정을 두고 본다면 고종이 걱정이 없다고 말한 것은 금(金)이 멀지 않아서 기울어질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金)이 기울어지게 되었으니 다시는 송을 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이니 금이 약화하는 틈을 타고 송의 실토(失土)를 회복하겠다는 뜻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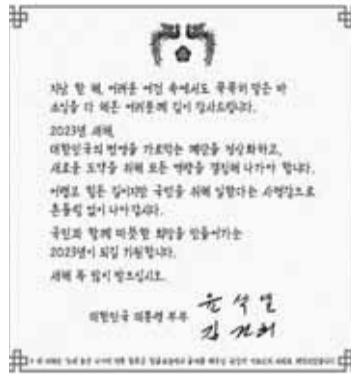
어쨌든 금(金)의 약화나 혹은 혼란은 송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송에 이것이 좋은 기회임을 알고서 그때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 기회를 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도록 준비하지 못한다면 미리 그리 변할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쨌든 이러한 송 고종의 판단은 바른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8년쯤 지난 소흥 20년에 금(金)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완안량(完顔亮)에게 희종(熙宗)이 피살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송의 고종이 한 일은 없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날 논법으로 따지면 금(金)의 완안량은 황제를 죽였으니 국제적으로도 공격해도 된다. 이 기회에 송이 금에 빼앗긴 영역을 회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일이 남송시기에 고종에게서만 있을까? 우리에게도 우리와 심한 생존 경쟁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가 있다. 줄여잡아도 미국과 중국일 터이니 그들의 속사정을 알고 이에 대처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진정 미국 자체를 연구하는 있는 사람이나 중국 자체를 연구하는 있는 연구자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흥 중국어를 잘하고 영어만 잘하는 사람이라면 중국이나 미국 연구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대통령 연하장에 등장한 칠곡할매글꼴 '권안자체' 원작자 권안자 할머니



'칠곡할매 권안자'체 한번 할 때마다 열장씩 했다. 두 시간씩 걸렸지. 한글은 적었는데 영어는 잘 못하겠더라, 이거 적는다고 한글 안이자뿌고 자냈다.

경북 칠곡에 사는 권안자 할머니(79)의 손글씨 글꼴 '권안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해를 맞아 각계 원로와 주요 인사 등에게 보낸 신년 연하장의 글꼴로 쓰였다. 권안자 할머니는 자신의 글씨체로 대통령 연하장이 쓰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와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이 내 글자로 연하장 썼다 캐가(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내는 배운 거 하나 없는 할매(할머니)데..."

윤 대통령의 연하장에는 새해 인사와 함께 '위 서체는 76세 늦은 나이에 경북 칠곡군 한글 교실에서 글씨를 배우신 권안자 어르신 의 서체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권안자 할머니는 "하도 꼬부랑 글씨라서 선생님 따라 그림 그린다 생각하고 그랬다"며 "글씨는 하나도 안 이쁘데 내가 왜 뽑혔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권안자 할머니는 시골 할머니 5명의 손글씨로 만든 '칠곡할매글꼴' 중 권안자체의 원작자다. 칠곡할매글꼴은 2020년 12월에 제작됐는데, 당시 칠곡군은 성인문해교실에서 공부한 할머니들의 글씨 400

여 개 중 권안자 할머니와 김영분(77)·이원순(86)·이종희(81)·추유을 할머니(89)가 쓴 글씨 5개를 뽑았는데, 각 할머니 이름 자체가 글꼴명이 됐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가 한글을 깨친 후 할머니가 쓴 글꼴이 글자체로 선정된 경우는 역사상 처음인 듯하다.

권안자 할머니는 열 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을 잃어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었다고 한다. 남의 집을 전전하며 식모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글을 배운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칠곡이 학교를 보내 달라고 조르던 기억이 난다." "글을 몰라 남들에게 무시도 많이 당했다." "그럴 때마다 서러웠다"고 아픈 기억을 회상했다. 권안자 할머니는 2017년 칠곡군에서 실시한 성인문해교실에서 그 한을 풀었다. 학교에서 내주는 편지쓰기와 시쓰기 등 숙제를 한 번도 미룬 적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공부했다. 시를 쓰며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그 중 권안자 할머니가 2017년에 쓴 '내마음'이라는 시다.

'아이고 너무 디곤(피곤)하다/마

음이 괴롭다/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재(재)/진짜 다 고달프다/그래도 학교 오니 조다.'

한평생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권안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시다. 그는 "날마다 내 생각을 글로 쓰니까 얼마나 좋아. 이자뿌지도 (잊어버리지도) 않고"라며 뿌듯해 했다.

할머니들은 칠곡할매글꼴을 만들기 위해서 4개월간 각각 2000장에 이르는 종이에 손수 글씨를 써가며 연습했다. 이렇게 탄생한 칠곡 할머니 글꼴(폰트)은 충주시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한글 전용 박물관에 전시된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글꼴은 지난해 한컴오피스와 MS오피스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탑재됐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칠곡할매글꼴을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아 유물로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권 할머니는 성인문해교육으로 어렵게 걸음마를 댄 자신의 글씨체가 전국 곳곳에서 사용되고 대통령까지 연하장 글씨체로 사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다. 권현완 편집국장

서울지역종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동권씨 마포종친회가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2월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시: 2023년 2월 12일 일요일 12시
- ♣ 장소: 한우마당(02-719-7792)

◆연락처: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3년 2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승구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23차)

서울산악회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2023년 2월 19일(일) 10시
- ♣ 장 소: 2.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앞
- ♣ 산행지: 관악산 국가봉
- ♣ 준비물: 간식, 식수, 개인필요장비
- ♣ 산행 후 남춘천 우리송어횃집 식사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순휘: 010-3797-1874

2023년 2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영복